

“학생자치활동에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

천호성 교육감, 군산 ‘자몽’ 사례 언급… 학생자치활동 취지 살릴 수 있는 지원 당부
시설 부설시공에 “엄정 대응할 것”… 교부금 개편 등에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24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라며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의 ‘자몽’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자치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4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당초 자몽은 학생자치 배움터로 출발했다”며 “군산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자치와 진로탐색, 문화·체험활동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공간이었지만 중간에 방향이 달라지면서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살아 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인데,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이라며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치활동의 핵심인 학생의회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각종 시설사업에서 부설시공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천 교육감은 “제가 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에서

부설공사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엄벌을 물을 것”이라며 “이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는 청렴성을 해치고 전북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간부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 전북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요즘”이라며 “두 달 가까이 지내오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지만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도 동시에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간부들부터 먼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교사가 설계 · 검증 AI 수업, 교실에 보급

전북교육청, 초중고 교사 18명 교육 · 컨설팅 · 수업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이 직접 설계하고 학교 현장에서 검증한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안을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초·중·고 핵심교사 1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AIEP 활용 AI·디지털 융합수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이날 말부터 온라인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AIEP는 구글 클래스룸에 내장된 AI 기반 학습 지원 기능으로, 연습 세트 제작과 영상 양방향 질문 AI 자동 힌트·피드백, 학습 분석 대시보드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한 AIEP 기반 수업 지도안을 학교급과 교과별로 직접 설계했다. 설계한 수업안은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한다. 교사들은 초등과 중등 학교급별로 3~4명씩 팀을 구성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한 수업 설계를 점검받고 수업 자료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컨설팅에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들도 참여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수업자료 개발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AIEP 기반 수업 설계 점검을 비롯해 연습 세트와 양방향 질문 설계에 대한 피드백, 제미니와 노트 북셀업을 활용한 수업 자료 개발 지원 등 학교급별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마련된 수업안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교실에서 적용된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수업에 수업안을 직접 적용한 뒤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수업안을 다시 수정·보완한다. 교사가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교실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완성된 수업안은 11월 이후 열리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개하고 도내 학교 현장과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 수업을 확산하는 전문가 역할도 맡게 된다. /오상근 기자

고교 통합과학 교사 수업 · 평가 전문성 향상

전북교육청, 교수역량 강화 연수… 도내 과학교사 2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비해 통합과학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고등학교 통합과학 담당 교사의 수업 ·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통합과학 교수역량 강화 연수를 총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과학 교사 200여 명이 참여한다. 1~2회차는 ‘수행평가 연계 실험 · 탐구 활동 연수’, 3~4회차는 ‘성취기준 통합형 평가 문항 제작 및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구성됐다. 1~2회차 연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행평가 연계 실험 · 탐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을 직접 선택해 수강하는 맞춤형 분반 방식으로 연수에 참여했다. 3~4회차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비해 성취기준 통합형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 22일 진행된 3차 연수에서는 영역별 전공 교사로 분반을 구성하고 통합과학 교과서 분석단 소속 협력 강사가 참여해 실습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참가 교사들이 사전 과제로 제출한 평가 문항을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제작 역량을 강화했다.
4회차 연수도 같은 내용으로 오는 29일 과학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탐구실험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과학탐구실험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물리·화

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비롯해 AI·디지털 기반 과학탐구까지 모두 60개의 실험·탐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각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탐구·실험 수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10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2026년 체육 인재 진로·진학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공교육 중심 체육계열 진로진학 지원 강화 | 2026 체육인재 진로진학 한마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육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 22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2026년 체육 인재 진로·진학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체육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교육 기반의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체육대학 입시에 필요한 실기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고등학생 17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명사 특강과 모의 실기 측정, 대입 집중 상담, 대학별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자신의 실기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및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체육인으로서의 진로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체육관에서는 제지마리리뛰기와 10m·20m 왕복달리기, 좌전굴 등 6개 종목에 대한 모의 실기 측정이 진행됐다.
실제 대학 입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종목별 실기 기량을 측정하고 결과 데이터는 진로·진학 전문성을 갖춘 교사단이 분석해 향후 학교 현장에서 체육 계열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명사 특강에는 하태권 전 배드민턴 선수와 이도현 전북현대포터스 단장이 초청됐다. 하 전 선수는 ‘꿈이란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단장은 ‘삶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경

험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대입지원단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 계열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진학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단국대와 성결대, 용인대 등 17개 대학의 체육 계열 학과가 참여해 수시·정시 모집 정보와 학과 생활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체육 분야 진로는 과거 단순 실기 중심의 직업 분야에서 체육교사,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 바이오텔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체육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희망하는 진로와 목표 대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교육청 개방형 직위 채용… 엄격히 검증을”

전교조 전북 “음주운전 전력 포함 도덕성 · 공직 적합성 살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채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호성 교육감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가 이번 개방형 직위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인사의 실제 응시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 되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공직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을 중요한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자체가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공무원 임용할 때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공직 권한과 책임을 맡길 사람으로서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해당 인사가 결국 인수위원회에서 물러나 사표를 언급하며 같은 문제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개방형 직위 임용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피지컬AI 대도약 결의 26일 전북대서 개최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발표 앞두고 지역 염원 결집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발표를 앞두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혁신을 향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오는 26일 오후 3시 전북대 진수당 77주년기념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AI 대도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G3R 지방주도 성장과 전북의 미래산업 도약을 위한 공동 결의를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북이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한 준비를 갖춰왔음을 알리고 지역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주요 기업, 연구기관, 대학 구성원, 전북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의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 학계·연구계가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동학 민주유산 전문 도슨트 과정 운영

우석대학교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이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한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미래융합대학과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2일 전주시민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동학 민주유산 전문 도슨트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국가적 민주유산으로 이해하고, 시민들이 동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이론교육에 이어 전주 동학혁명기념관과 전라감영 선화당을 찾아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역사현장을 찾아 역사적 과정과 민주·평등·인간존중의 가치를 살펴봤다.
특히 전주성 입성과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와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사건이 전주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되새겼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6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전문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4일 참조내내 시청각실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감사지원단 등 105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전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감사행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수석감사관들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감찰론 일반 △감사담당 공무원 윤리강령 및 감사업무 이해 △감사증거 확보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박종훈·박진철 수석감사관은 직무감찰과 감사증거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법과 현장 경험을 전달했다.
전북교육청 이흥열 감사관도 직접 강의에 나서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과 감사업무 전반을 설명하고, 감사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